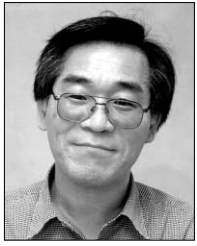


목어

수능과 고교평준화



윤원철 서울대학교수 종교학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5년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수능시험에 관한 회의는 수차례 제기되어 왔지만, 이제는 정말 수능시험의 존재 여부부터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에 다다른 듯하다.

1969년부터 1981년까지는 대학 입학예비고사, 1982년부터 1993년까지는 대학입학학력고사, 그리고 1994년부터 지금까지에 이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표면적으로 어떤 취지를 내세웠던 간에 공통된 실질적인 목적은 역시 위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데 있다.

이 시책은 시대적인 요청에 따른 노력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으로 날로 팽창하는 고등교육 인력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국의 인재에게 골고루 고등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데 기여했다. 고교평준화, 대입 본고사 폐지, 수능시험 객관식 출제 등 하향평준화 방향이 이에 직접적으로 공헌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장치가 사교육 열기를 잠재우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제대로 기능한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경제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앞날을 이끌어갈 지도적 인재를 발탁하는 데에는 장애가 되었으면 되었지만 도움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젠 그런 교육 및 입시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마지막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사회적 사실(social facts)'이라는 말이 있다. 사회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일로서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든가, 마약복용자가 늘고 있다든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다든가, 이혼건수가 일년에 12만 쌍을 넘어서 세계 몇째라는 얘기가든가, 부부 합계 출산율이 1.17%로 낮아져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든가 하는 것은 모두 사회적 사실에 해당된다.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 유치 문제를 놓고 정부와 부안 주민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심지어 전쟁상태까지 와 있는 상황도 '사회적 사실'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사회적 사실에 어떻게 '가치부여'를 할 것인가? 가치부여 문제는 사회적 사실보다 더 복잡하다. 어느 편에서 이 문제를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부안 핵폐기물 관리센터를 우리나라 어디가에 세워야 되는데, 후보지를 공모해 본 결과 정부입장에서 볼 때 애국적인(?) 부안군수가 유치신청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안의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고려하고, 부안에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는 식으로 제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안에서 태어나고 부안에서 성장하면서 죽어도 부안에 뼈를 묻고 대대손손이 살



불자 세상보기

한진수

한성대 행정학 교수

부안 문제 열쇠는 '신뢰'

아기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부안에 핵폐기물 관리센터가 들어선다면 그것이 안전한가. 선진국에서도 안전성 문제로 시비가 일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하다는 정부말만 믿고 있어야 하는가.

만약 핵폐기장에서 방사능이 새어나온다면 나와 내 자식은 죽거나 장애인 되는 것은 아닌가. 또 그 무서운 핵폐기장을 건설할 때는 주민들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정부는 군수와 합의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럼 우리는 뭐란 말인가. 따라서 부안군민들은 이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에서는 부안에서의 반대시위가 평균수준 이상이라는 감(感)을 잡고 경찰병력을 대거 파견했다. 폭력을 동반한 데모를 하는 주민에 맞서 경찰도 폭력을 행사했다. 사실 민간인이 무기를 들고 데모를 하면 불법시위이고, 폭력 행위지만 경찰이 폭력을 내세워 진압을 하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가.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민들의 합의를 토대로 하여 핵폐기물 처리장유치 결정을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일이 생각지 않게 꼬였다.

부안대책위가 주민투표를 만들어 어렵사리 대화의 물꼬를 텃지만, 국무총리가 말을 못

변이나 바꿨고, 산업자원부는 위도에 원전 폐기물장을 건설하겠다는 당초계획을 그대로 추진을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위의 주모자(?)를 색출하고 엄벌하겠다고 나섰다. 주민투표를 연내에 실시하려는 주민과 내년도 5~6월에 실시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정부와의 대화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부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처음의 '사회적 사실'로 돌아와 살펴보자. 정부는 원전폐기물을 부안에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부터 재검토하고, 주민의 의사에 반(反)하는 정책 결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고 있는지도 반성해야 한다.

또 원전센터 건립사업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사실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했던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안주민들도 이제 냉정을 되찾고 사실과 진실을 감정으로 덮어버리는 대응자세를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사태의 가장 큰 핵심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다. 이는 군사력이 없는(非足兵) 정부나 백성이 먹을 식량이 없는(非足食) 정부보다 못하다는 공자와 제자 자공(子貢)의 대화를 상기해야 할 때이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자동차 문명과 도로

“오염주범 車 너무 많다”



심재웅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부장

불필요한 도로 건설 사례 적극 홍보

2003년 11월 22일 전국 만 20세 이상의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자동차 문화와 도로에 관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최대허용 표본오차 +/-4.9%)' 결과 응답자 중 80%는 많은 도로를 건설하는 것만으로는 교통난을 줄이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또 82%는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자동차가 너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55%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지적했다. 응답자 중 73%는 자동차가 환경파괴와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며, 56%는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오염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원 건축환경연구원 '광장' 대표이사

자전거도로 등 대체 교통수단 필요

자동차는 물건은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 70kg짜리 사람 하나 내지 다섯을 옮겨 놓기 위해 12,000개의 부품으로 조립된 1,500kg짜리 쇠붙이가 움직여야 한다는 설정 자체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자전거 설계과정과 생산방식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품 통일과 폐차 재료의 재활용이 아직도 원시적 수준에 있다. 연비가 좋아졌다고 하나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하고, 안전문제는 오랫동안 도외시 돼 왔다. 특히 자동차를 타는 근본목적인 시간절약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자전거는 공해발생의 일등 원흉이 됐다. 게다가 자동차는 원래 위험한 물건이다. 그래서 '달리는 흉기'라고 한다. 랩트 데이터에 의하면 세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가격의 총합계보다 자동차로 인한 한 해 동안 사고의 피해액 총계가 훨씬 더 많다. 단순한 사업이나 장사로 치더라도 타당성, 사업성, 수익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은 왜 자동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서양 사람들은 개별 교통수단을 좋아한다. 자동차는 자신감, 독립심을 심어주고 인간 활동의 기능성을 증진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자동차는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외롭게 하고 의타적으로 만들었다. 사대문 안에 차 없는 도시, 모든 도로의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화, 진정으로 걷고 싶은 거리, 전차 부활 등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연말 내 북한산 관동도로 문제를 결론짓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문명과 도로에 관한 포럼이 열렸다. 우영보총회(회장 최중기, 인현대 해양학과 교수) 주최 제1회 우영포럼 '자동차 문명과 도로-필연인가, 선택인가'는 현고 스님(조계종 기흥사), 미산 스님(조계종 사회부장) 등 불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7일 한국골프스카우트 회관9층에서 개최됐다. (정리=남동우 기자)

토굴로 돌아간 법정스님

수필집 <무소유> <산에는 꽃이 피네> 등으로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법정(法頂) 스님이 세속의 직책을 모두 내놓고 강원도 산골 토굴로 돌아갔다. 법정 스님은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를 통해 "서울 성북동 길상사 회주와 맑고 향기롭게 회주 등 공직 직책에서 모두 물러난다"고 밝혔다. "내 글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는지 반성한다"는 결손의 말도 덧붙였다. 앞으로는 매년 봄·가을 두차례만 길상사 법회에서 법정 스님을 만나볼 수 있다.

창의성 해치는 베껴쓰기

위턱대는 11월 24일 전국위탁독서대상 응모작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0월 한달간 총 57개 고교에서 621편이 접수됐다. 그런데 이 가운데 베껴쓰기를 한 작품이 상당수에 달했다고 한다. 심사위원들은 인터넷이 생활화 된 이후 베껴 쓰기 현상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진정성 심사위원장은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2003 11·12 www.kbpf.org. 무엇이 불교인가? 마음을 바꿔 줘야 진짜 불교다. 책 속의 책 | 서양의 주요 불교전문 출판사. 불교특강 | 종석 스님의 '대일경, 강의'. 서양 스님의 영어로 배우는 부처님 말씀 | 외국인도 금금해하는 불교. 이철교의 고전산책. 경허 스님의 기행에 대한 제자 한암과 석전 스님의 고뇌를 읽는다. 성낙주의 문화재소설 '논산 관측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운명학의 최고봉 적천수(滴天髓)! 드디어 상·하권 완간! 역학도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적천수]가 비로소 완전정복 된다. 적천수 원문 완전 수록. 운명학의 최고봉 적천수(滴天髓)! 명리(命理)의 진수(眞髓)를 파헤쳐 정확한 예단을 통해 운명을 개척한다! 적천수 원전(元典)을 토대로 삼남같은 함정과 오류를 드러내고 의문을 밝혔다.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